

**Eaton-Lambert증후군과 항이노 호르몬 과다분비증(SIADH)이
동반된 소세포 폐암 1례**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부산백병원 내과학교실
이형준*, 주영돈, 손창학

종양 수반 증후군(paraneoplastic syndrome)은 암의 원발 부위 또는 전이 부위 이외의 부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증상이나 증후를 일컫으며 원발암의 진단전에도 나타날 수 있다. 이 중 Eaton-Lambert 증후군은 드물게 나타나는 증상으로 신경근 접합부의 신경절전 신경말단에 대한 자가항체에 의해 유발되며, 항이노 호르몬 과다 분비증은 종양에 의한 항이노 호르몬의 이소성 분비에 의해서 생기며 이 두가지 종양 수반 증후군이 소세포 폐암에서 병발한 예는 전 세계적으로 매우 드물며 국내에서는 아직 보고된 바가 없다. 저자들은 최근 소세포 폐암으로 진단된 56세 남자환자에서 Eaton-Lambert증후군과 항이노 호르몬 과다 분비증이 동반된 1례를 경험하여 이에 보고하는 바이다.

【증례】 56세 남자환자가 내원 약 3개월전부터 하지근력 약화, 호흡곤란, 발음장애로 내원하였다. 과거력상 특이사항 없었으며, 하루에 한갑씩 30년의 흡연력을 가지고 있었다. 이학적 검사상 혈압 100/60mmHg, 맥박수 82/분, 호흡수 20/분, 체온 36.6℃였다. 신경학적 검사상 의식은 명료하였고 양측 안검하수가 있었고 하지에 IV/V 근력약화가 보였으며 심부전 반사는 감소되어 있었고 병적 반사나 감각반응의 이상은 없었다. 말초 혈액 검사상 백혈구 15,880/mm³, 혈색소 12.0g/dl, 혈소판 252,000/mm³ 이었고 전해질 검사 소견상 Na/K/Cl 120/4.5/90mEq/L, BUN/Cr 12/0.6mEq/L, Urine Osmolarity 650mOsm/kg, Serum Osmolarity 250mOsm/kg, Urine Na 76mEq/L이었고 신기능, 부신, 갑상선 기능검사는 정상으로 항이노 호르몬 과다분비증에 합당한 소견보였다. 흉부 컴퓨터 촬영상 우측 기관 주위로 동치진 종양 소견보여 기관지 내시경 조직검사상 소세포 폐암으로 확진되었다. 뇌척수 검사와 뇌컴퓨터 촬영상 특이사항 없었으며 환자 내원후 호흡곤란과 근력 약화 소견 더욱 악화되어 시행한 Jolly검사상 Eaton-Lambert증후군에 합당한 신경근 접합부 이상 소견 보였고 이후 더욱 근력 약화 심해져 기계호흡을 시행하였고 혈장교환술과 스테로이드를 투여하였으나 임상적 호전 없었고 이후 한차례 항암화학 요법을 시행하였으며 현재 지속적인 지지치료 중이다.

골의 유혈육종 1례

박봉진*, 김준희, 김여희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서울 백병원 내과학교실

골의 유혈육종은 뼈에서 발생하는 유혈육종과 조직학적으로 유사한 그 빈도가 매우 드문 질환이다. 대개 10세에서 30세 사이의 청소년기와 젊은 성인군에 호발하며, 척추주위의 연부조직, 흉벽과 허저에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진단은 조직의 형태학적 검사에 의해서 가능한데 종양세포는 세세하게 산재된 임의질의 원형핵과 PAS염색에 양성반응을 보이는 세포질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형적인 유혈육종과 유사한 구조를 보인다. 치료 방법 특히, 표준화학요법에 대한 많은 논란이 있으나 doxorubicin을 근간으로 한 화학요법이 궁극적인 생명 연장에는 다소 미약한 효과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제발과 고도악성의 학자 육종에 의한 사망을 유의하게 감소시킴을 보여주고 있다. 저자들은 진행된 골의 유혈육종 환자에서 화학요법으로 치료후 부분 관해를 보인 골의 유혈육종 1례를 경험하였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증례: 19세 남자환자가 근전검사에서 시행한 흉부촬영상 우연히 발견된 좌측폐상엽의 고밀성 결절성 폐병변을 주소로 내원하였다. 특별한 과거력은 없었으며, 활동증후는 정상이었다. 정전에서 좌측 폐상엽의 호흡음이 감소되어 있었고 기관지 내시경에서는 폐폐상엽의 허탈을 볼 수 있었다. 흉부전산화 단층촬영에서 흉대, 흉벽에서 시작된 듯한 폐사부위의 작은 식회화된 부위를 포함한 10x10 cm크기의 조영이 발견되었다. 중앙 적출술과 폐폐기절제술을 시행하였다. 보존의 흉벽 및 전좌폐경검사에서 원형의 핵, glycogen을 다량 함유한 소량의 세포질의 소견이 보이는 등의 유혈육종에 합당한 소견을 보였다. 환자는 vincristine, adriamycin과 cyclophosphamide의 화학요법 1차시행후 호응도 부족으로 9개월간 추적되지 않던 중 호흡 곤란을 주소로 다시 내원하였다. 내원시 중격은 좌폐 전체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1차 화학요법후 증상의 호전 및 부분 관해가 관찰되었다.